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오늘 편지는 어떤 내용이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기록과 시간을 복기해보았습니다.

아주 바쁘게 살았는데도 기록이 소원하니 기억만으로 지난 시간을 소환해내는 것은 역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작은 기록에 의지해 여러분과 마주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눠보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센터 건축이야기와 마을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가족을 중심으로 제 짧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대화 나누어요.

센터
거의 두 달 가까이 밤늦게까지 바빴는데 그 이유는 표면상으론 건축이 일단락졌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이라 한 이유는, 사실은 손 볼 곳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건축이 일단락 졌다고 한 이유는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로부터는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정신적인 놓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심 감사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남은 일은 제 몫이라고 예상하고 각오했지요.
한국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을 받아놓고 아슬아슬하게 열쇠를 넘겨받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라 최소한의 연장을 구매하고 건축 자재상과 시장을 오가며 생전 처음 해보는 목공일과 자잘한 보수작업, 그리고 필요한 cctv 13~14대 가운데 아쉬운 대로 4대만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까지.
그동안의 여정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그리고 이 여정이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으로 동행해주신 ㄱㅎ에 무어라 감사를 다 표현할까요. 사랑과 자랑스러움을 어찌 다 고백할까요.
센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씨앗센터로 명명한 이 건물은, 교실 1개 (~4.7 x 4m), 같은 크기의 작은 컴퓨터실 1개, 컨퍼런스 용도의 교실 1개(~4.7 x 9m), 스태프 사무실 (4.7 x 7?), 작은 화장실 2개, 샤워실 1개 (이 샤워실은 아마도 용도를 변경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센터 보일러실, 센터 부엌 이렇게 조성되어있고, 센터와 인접한 사택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흙/잡초로 덮여있는 안쪽 뜰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잔치를 열 공간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널찍한, 하지만 온통 잡초로 덮여있는 뒤뜰은 야외 교실과 오손도손 둘러앉아 키국의 밤하늘을 웃음과 이야기로 채울 작은 fire pit으로 꾸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짓고 나니 한가지 소심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센터 교실보다 저희가 살게 될 사택이 훨씬 더 럭져리하게 보여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겁니다. 그 변을 여기에 짧게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센터를 컨테이너로 짓게 되다 보니 교실과 방의 크기와 디자인에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디자인을 모두 알아서 혼자 하다 보니 개념도 잘 안 섰습니다. 교실 크기는 지난 경험으로 작은 교실을 선호했었고, 안뜰을 다목적으로 넓게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하다 보니 완성된 교실 크기가 최선이었습니다.

사택으로 넘어와, 1층이 저희 사택이고 2층은 중요한 모임이나, 회의, 손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저희 사택인데, 안방과 작은 아이들 방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있고 비교적 널찍한 거실이 이 부엌과 다이닝룸 경계벽 없이 "ㄱ"자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실이 아주 럭셔리하게 넓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냥 넓은데... 사택의 크기를 결정할 때 처음에는 컨테이너 3개를 붙여 디자인했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저희 아이들 셋이 모두 모였을 때 다섯 식구가 그 공간에 지낼 수 없겠다 싶어 4개로 늘린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붙인 것이니 3개 다음은 4개인 거죠. 사택을 컨테이너 4개로 하는 대신 옆집과의 벽돌담 (+ 자잘한 것 몇)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ㅎㅎㅎㅎ 네,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 중에도 세워져 가는 기쁨을 맛보았다면, 앞으로는 완성되고 채워지는 기쁨, 하나님의 센터를 이웃과 나누고 마을과 가정들을 세우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사용되도록 마음껏 동참해주세요. 아낌없는 응원, 그리고 보고 싶은 여러분의 방문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은 공간으로 잘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씨앗센터를 맡게 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네 아이들/사람들
한 달 만에 만난 아이들이 부쩍 컸습니다. 마치 2~3년의 시간이 흐른 듯. 1학년 2학년 때 만났던 꼬꼬맹이 아이들의 키가 아내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아내의 눈 아래까지 따라잡은 이제 5학년 된 메림을 보고 놀라 메림이 정말 많이 컸다고 했더니 아내가 받아칩니다. "내 키는 5학년 때 키야." 이리 유쾌하고 당당한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재밌어서 웃었지만 여기 기골이 장대한 분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메림의 성장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저도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재가 났었던 우르맛 집에 갔더니 또 이사나갔습니다. 연락이 되어 물어봤더니 불과 며칠 전에 이사했다면서 새로운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이사인지 이젠 셈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네요.
바느질하는 엄마와 오빠와 함께 사는 3학년 아이다이는 언제나 우리의 방문을 너무나 반깁니다. 아이다이가 저로부터 아빠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던 아내의 이야기가 저도 동의 되었습니다. 저를 살갑게 대하는 아이다이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벡뚜르는 9학년을 마치고 10학년으로 진학하지 않고 콜리지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선생님께서 부산 호ㅅ나와 미국 온ㄴㄹ ㄱㅎ의 지원으로 운영하시는 대학입니다. 벡뚜르와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 때보다 확연히 자랑스레 소개해줄 수 있는 건실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벡뚜르 부모님도 아주 만족하셨고요. 부모의 자랑거리이자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성실하고 똑똑한 벡뚜르. 한국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여는 것이 꿈인 벡뚜르가 꿈을 잘 펼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지만 끝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평생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요새 마을 상수도 공사로 한창 골목마다 땅을 파고 있는데 키가 크고 건장한 러시안 중장비 기사가 몇몇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맞았다고 하네요. 욱하는 기질이 저랑 좀 닮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순박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ㄱㅎ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ㄱㅎ를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신심 깊은 ㅁㅅㄹ들이 마치 우리를 벼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이런 반응이... 두렵지는 않고요. 약 2년 반(?) 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마을에서 나오라고 하셨지요. 이미 두 4역자가 들어갔다 쫓겨난 마을이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이유죠. 사랑하는데 시간 낭비일 리 있겠습니까. 대결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ㅇㅅ 사랑 실천을 위해 갔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어떤 마을 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두렵다던데..ㅎㅎㅎ 우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사이의 벽도 허물고 두려움도 허물고 싶어요. 사랑은 막힌 담도 허물고 두려움을 이기니까요.

가족
지난날의 회상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감사의 시간입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크게 말씀하신 때와 가장 많이 일하신 때는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절망했을 때, 절규했을 때, 고독했을 때, 아픔으로 신음조차 못 냈을 때, 아들을 보시는 그는 얼마나 나의 절망을 속으로 인내하셨을까. 내 절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 고독에 얼마나 맘 졸이셨을까. 내 아픔이 얼마나 그를 아프게 했을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내게 크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반면, 지금이라는 시간과 현실이라는 상황의 무게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를 한없이 아래로 잡아당길 때, 나의 시선이 과거와 오늘에만 묶여있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키 위한 짧은 시선으로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무덤 뒤 혹은 몇 년 후 내게 주어진 일(사명)을 살아내는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먼 시선은 우릴 더 건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되었든 자아의 죽음이 되었든) 집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강이자 영광스런 부활을 위해 연주해야 할 전주곡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생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염두에 두는 삶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확실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마지막(죽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묵상한다는 건 지난 삶을 회고하고 반추하고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함을 더 간절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남은 삶을 알차게 보낼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삶에 대한 미련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누구나 반드시 맞이할 시간을 대면할 용기이자 지혜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반추하며 미래를 그리고 무덤 너머를 바라보는 행위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리움을 끄집어냅니다.
과거와 미래, 죽음까지 묵상하다 보면 가슴에 물컹한 촉촉함이 쏟아지려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꼬옥 안아줄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잘 살고 있었다고, 잘 살아 있었다고, 얼굴이 건강하고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조금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심장의 ache 몸살을 통해 아버지 사랑의 깊이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은 육신의 감각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이자, 땅의 감각으로 하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제도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방문을 마치고 7월 7일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 일일이 말씀 못 드려도 소식을 받아보시는, 가족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 뵙고 싶습니다.

키국에서
하람이 아빠 올림

삼남매 엄마 이야기 (37)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격리 중입니다. 한국 여권 없이 한국 방역 시스템을 통과해서 입국하기도 힘들었는데, 한국 카드와 핸드폰 인증번호없이 하는 격리는 또다른 갇힘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난 3개월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건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완료했습니다. 두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비싼 수업을 마쳤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한 동네, 새 건물에서 일어날 새 일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주영이는 7년동안 키르에서 잘 지내고 5월 29일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졸업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출국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영인 누나랑 같은 학교에 가기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을 멀리 보내면서 둘이 1년이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택함인 비시켁에서 11학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텝이 부족하고 학교가 불안정해서 친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11학년은 여섯 명만 공부하게 됩니다. Better than nothing…. 여름방학동안 영어선생님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하람인 미국에서 식구들이 빨리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학하고, 우리가 격리하느라 아침저녁으로 통화를 하니 더 그리워지나봅니다. 올 여름은 하람이, 주영이, 택함이가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실행해주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아서 어찌될 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키르를 떠날 때보다 확진자가 더 늘어서, 비시켁은 다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온 나라가 락다운되었던 곳에 고립되어 있다 나와서 그런지 아프면 바로 치료해주는 곳에 와 있다는 안도감 덕분에 격리의 답답함도 별 어려움없이 잘 지나갑니다.

이제 곧 격리를 마치면 친정 부모님을 뵙고, 또 딸을 보러 미국으로 떠납니다.

엄마와 하람일 만나는 기대보다 어떻게 또 헤어지나 하는 서늘한 마음이 우울하게 찾아오면, 이 격리 시간마저도 천천히 지나가길 , 올 여름은 좀 느리게 시간이 흐르기를 바래봅니다.

이렇게 쓰고 발송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내일이면 격리가 끝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할 일이 많은 4050 나이지만, 또 열심히 재미있게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키국에 코로나가 잠잠해 지도록
2. 센터가 목적에 따라 채워지고 완성되도록
3.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되도록
4. 주영이 입학 준비 잘 하도록
5. 본국에서의 모든 만남을 통해 친밀함이 더 하도록

후원안내

미주: PAYABLE TO : GP USA
MEMO : 윤재웅 현순
Send Check to ADDRESS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한국 : KEB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990-090820-517 (예금주 : 윤재웅, 현순)